



(인상, 해돋이)-1873년, 캔버스에 유채, 48*63, 파리 마르모탕 미술관 소장

- 자연이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었던 클로드 모네 -

자연은 언제 어느 때나 찾아가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자연을 사랑했던 모네는 빛에 변화에 따른 자연을 묘사한 인상주의 대표적인 화가다. 그는 하늘과 눈과 물에 비친 구름을 최초로 그린 화가로서 자연을 자신의 예술세계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모네는 화가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프랑스 공식화단에서 빠른 성공을 기대했었다. 그는 살롱전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대중의 취향에 부합된 인물화 작업을 하기로 한다. 그 당시 인물화는 명예와 부를 가져다 줄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모네는 관습을 좇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선과 대담한 색상을 사용해 공식 화단에서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고 싶었던 것이다.

모네는 자신의 원대한 야망에 채워 줄 모델 카미유 동시위를 친구였던 르누아르의 화실에서 만난다. 카미유는 당시 인상파 화가들의 정부이자 모델이었던 쉬잔 발라동과 어울리면서 인상파 화가들의 모

텔 일을 하고 있었다. 모네는 작업실에서 카미유의 전신 초상화를 나홀 만에 제작해 살롱전에 출품해 입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살롱전에 호평에 고무된 모네는 카미유를 모델로 인물화를 제작한다. 하지만 모네는 전통적인 인물화 방식보다는 자연과 인물이 함께 있는 방식을 택했다.

모네는 인물과 자연, 두 가지 소재를 만족하기 위해 야외에서 대형 캔버스를 놓고 작업을 했지만 인물들이 풍경 속과 어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풍경과 따로 있는 느낌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모네의 인물화는 실패한다. 살롱전에서 화가로서 주목을 받지 못한 모네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25살의 모네와 19살의 카미유는 동거에 들어간다. 직업모델이었던 카미유가 천민 출신에 모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집안의 반대가 극심했다. 모네의 아버지는 프랑스 중하위 계급이었지만 후에 식품상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모네의 어머니는 그가 열일곱 살 때 세상을 떠나 어머니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네의 아버지는 아들이 화가로서 빠르게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과 카미유와의 동거 문제로 그에게 경제적 후원을 끊어 버린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모네와 카미유는 아들이 태어나고 3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다. 당시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 런던에 망명했던 모네는 파리로 돌아와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모네의 집안에서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한다. 결혼한 모네는 아르장퇴유에 집을 얻는다. 아르장퇴유는 파리 시민들의 주말 소풍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세련된 요트경기장, 해수욕장, 카페 등이 있어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상향이 되었다.

모네는 아르장퇴유에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 아버지의 유산과 카미유의 결혼 지참금 그리고 후원자가 정기적으로 그림을 사주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2명의 하인까지 고용할 정도로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아르장퇴유의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서정을 그리던 모네는 당시 유행하던 자포니즘에 빠진다. 모네의 일본사랑은 말년에 지베르니 정원에 일본식 다리까지 두었을 정도였다.

1867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일본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는데 당시 새롭고 낯선 이국적인 문화에 파리 시민들은 열광했다. 상류 사회 부인들은 기모노를 입고 일본 부채를 들었으며 일본 도자기로 집안을 꾸미는 것이 멋쟁이로 여겼으며 그러한 풍토는 파리 화단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 관화가 갑자기 유행하게 된 것이다. 일본관화에서 볼 수 있는 확고한 윤곽을 모사한 작품으로 두고 자포니즘이라고 불렀다.

모네의 자포니즘을 나타나 있는 작품이 〈일본 여인,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카미유〉다. 화려하게 수놓은 기모노를 입고 오른손에 부채를 들고 카미유가 화면 정면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카미유는 부채질을 하면서 요염한 미소를 짓고 있다. 카미유가 입고 있는 붉은 색의 기모노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무라이가 그려져 있다. 사무라이는 부채를 든 채 요염하게 웃고 있는 카미유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풍의 부채가 바닥과 벽을 장식하고 있다.



〈일본 여인,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카미유〉
1875년, 캔버스에 유채, 231*142, 보스턴 미술관 소장

카미유의 죽음 이후 자연에 매료된 모네는 인물화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작품에 인물을 그리지 않는다. 또한 그녀의 죽음 이후 모네는 화가로서 성공의 길을 가게 된다. 모네는 아르장퇴유에서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면서도 빛에 따라 변하는 자연에 매료되었다.

모네는 살롱전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예술세계를 바꾸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인상주의 전시회를 계속 참가하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갔다.

모네는 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일본인 같지 보이지 않는 카미유에게 금발의 가발을 씌우고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이 그려진 부채를 들게 했다. 하지만 아르장퇴유에서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결혼할 때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웠으며 모네의 유일한 후원자였던 부유한 실업가였던 에르네스트 오슈데가 파산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오슈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장퇴유에서 모네와 함께 살기 시작한다.

모네는 오슈데의 가족까지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으며 자궁암을 앓고 있던 카미유를 간병해야만 했다. 카미유는 3년 동안 모네와 오슈데 가족들의 지극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1879년 서른두 살에 세상을 떠났다.

인상주의 전시회에 모네는 〈인상, 해돋이〉이라는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고 그의 작품을 본 비평가 루이 르루아가 ‘르 샤흐마리’지에 기고한 기사의 제목을 〈인상, 해돋이〉에서 따온 ‘인상주의 전시’라고 붙이고 비난을 퍼부었다. 곧 이 기사는 처음 인상주의를 조롱하기 위해 쓰였진 말이 그들을 대표하는 말로 되었다. 이 작품에서 모네는 르아브르의 항구의 아침 인상을 유연한 붓놀림과 투명한 색을 사용해 아침 햇살에 빛나는 항구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회색빛 색조 위로 반사되는 햇빛은 간결하고 대담한 오렌지 빛 붓놀림으로 표현했다.

화면에서 배와 돛대와 연통은 짙은 안개 때문에 흐릿하지만 부드러운 붓놀림으로 인해 화면이 정지되어 있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클로드 모네(1840~1926)는 15세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리 주변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모네는 화가가 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가업을 잇기 바랐던 아버지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자 모네는 캐리커처로 번 돈을 가지고 파리의 미술학교에 입학을 한다.

파리에서 모네는 미술학교의 수업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과 뜻을 하는 르누아르 등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작업실에서 할 수 없는 자연의 에너지와 생동감을 주력해서 표현하기 시작한다.

모네는 자신의 중심에 있는 자연을 벗 삼았다. 그는 자연 속에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모네는 도시생활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파묻힌 채 열성적으로 작업에 몰두한다. 그는 빛의 끊임없는 변화에 따라 동일한 풍경이 달라지는 모습을 포착하고 끝없이 노력하고 탐구했다.

모네의 유일한 모델이자 사랑하는 아내 카미유가 죽자 절망한 그는 혹독한 겨울을 그리지만 어느 날 겨울 한가운데서 따사롭게 비치는 햇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새롭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모네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바뀌는 하늘에서 모티브를 찾아 새로운 작품세계를 열었던 것이다. 자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 모네는 말년에 1890년에 몇 해 동안 사 모은 땅에 집을 짓고 자신의 낙원을 건설했다. 그곳이 지베르니의 정원이다. 모네는 잡풀만 무성했던 정원을 그림처럼 구상했다.

계절마다 바뀌는 갖가지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었던 것이다. 정원에 피는 모든 꽃들은 모네의 말년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지베르니 정원을 그린 작품은 모네의 예술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가 나타난다. 